

삼성전자,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신활력산단 분양 대금 납부 완료 스마트 허브...2027년 완공 목표 500여명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

삼성전자가 고창신활력산단단지 내 스마트허브 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예정지의 분양 대금 납부를 완료했다.

고창신활력산단단지 승인 14년만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입주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스마트물류센터의 분양대금 총 173억원 납부를 완료하고 14일 신활력산단단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또 3억원의 취득세까지 완납했다.

고창신활력산단단지는 2010년 고창일반산업단지 지로 승인 이후 공사 중단과 환경오염 논란 등을 겪었다.

군은 민선 8기 심덕섭 군수 취임과 동시에 신활력산단단지 명칭을 변경한 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 유치에 집중했다. 지난달 9월25일 삼성전자와 투자협약이 체결되고 올해 4월3일 분양계약에 이어 이번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됐다.

주민들은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것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각 모임·단체별로 거리 곳곳



삼성전자 고창군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예정지.

<고창군 제공>

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삼성전자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창신활력산단단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를 매입해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지난달 24일에는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건축설계를 맡은 무영종합건축사가 고창군을 찾아 심 군수와 업무협의를 갖기도 했다.

물류센터는 내년에 착공해 2027년 내 준공 예정이다. 공사 중 건설·기계장비 등 관내 기업과 인력의 우선 활용·채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물류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5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계획하는 고창스마트물류센터는 자동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각 장비의 연동이나 유지보수 등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연스럽게 로봇, 컨베이어, 소터 등 자동화 장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와 이전까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 투자하기로 결정해 준 삼성전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고병원성 AI 차단' 상황실 가동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가금 농가 예찰·점검 등

고창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례에 따라 관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창군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상황 전파 및 신고 체계를 유지한다.

또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예찰·점검, 축사 내외부 소독, 차량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방역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방역취약 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벌이는 등 농장별 자율방역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내 3개소의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 차량을 소독하고 3개소의 동립저수지 통제소소를 운영해 통제 및 소독지원에 나서고 있다.

공동방제단과 방제차량 등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가금농가와 동립저수지 주요 진출입로 소독, 가금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관내 고병원



고창군이 운영하는 방역소독차량이 AI 유입 차단을 위해 고창들녘에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장 내 장화 갈아신기,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축사 내 주요 이동통로 매일 2회 소독 등 방역 활동을 철저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단속

젓갈·냉동공치·염장 새우 등 20~22일 특별점검

정읍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장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은 냉동공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 새우 등이다.

이들 품목은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단한다.

이에 정읍시는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노점상 등 약 30곳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표시판을 배부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와 계도를 철저히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중·고생에 심화학습 온라인 콘텐츠

시민장학재단, 내년부터 희망자 선발 국·영·수 등 수업

정읍시 지역외딴재 육성사업이 2025년부터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방향으로 새롭게 바뀐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내년부터 평생학습관에서 중학교 2~3학년은 학년별 20명, 고등학교 1~3학년은 학년별 40명을 선발해 주말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목 심화학습과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발은 오는 12월 중 교과수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선발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 중·고등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학업 성취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등학생들을 위해 논술, 대입 면접, 진학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입 준비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우수한 대학 진학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학생들에게 수도권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외딴재 육성사업은 시와 전북자치도, 시민장학재단이 협력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다. 전문 입시학원과 위탁 운영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방한용품 지급·비상 연락망 구축

행동 요령·건강관리 수칙 등 홍보

남원시가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노인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겨울은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고된 가운데 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방한용품을 사전에 지급하는 등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열기구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가구는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파대응 행동 요령과 건강관리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생활지원사215명)이 취약노인(305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응급안전심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동작감지 확인, 장비 관리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겨울철 한파대비 사전 대응



남원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취약계층 노인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묻고 있다.

<남원시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긴급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